

영암, AI 단골 발생... 왜?

2008년·2011년 이어 올해도 3곳 확진

전남 최대 가금류 사육... 바이러스 상존 추정

전남도 정밀역학조사 나서

잡잡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영암'을 주목하고 있다. 관내 첫 발생지와 연관성이 낮은 영암에서만 유독 발생빈도가 높는데다, 의심신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달 24일 해남군 송지면에서 가장 먼저 AI가 발병한 뒤 삼척군, 이등면, 함평 등지로 퍼져나갔으나 이후 나주시 세지면에서 지난달 25일 발병했다. 해남과 나주의 농장주는 동일인으로, 곧 감염 '루트'가 드러났다.

문제는 영암, 영암은 해남에서 나주로 가는 길목이기는 하지만, 나주 발병 3일 후인 지난달 28일 영암군 덕진면에서 신고가 접수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해남·나주·영암지역 해당 농장 주변 10km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제한과 방

역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후 다시 소강기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6일과 11일, 각각 8일과 5일의 간격을 두고 도포면과 영암읍에서 다시 AI 신고가 접수됐다.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농장은 경계지역(10km) 내에 있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집중적인 방역이 진행된 곳이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현상에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영암이 고병원성 AI 단골 발생지라는 점에 전남도가 긴장하고 있다. AI는 지난 2003년 나주에서 첫 발생했지만, 2008년에는 영암, 2011년에는 영암 등 도내 8곳에서 AI가 발병했다. AI 유형이 지금까지는 전부 H5N1이었지만 올해는 H5N8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도는 영암지역에 AI 바이러스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I유형이 모두 144종에 이르며, 이들 바이

러스가 감염이나 변이 과정에서 저병원성에서 고병원성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도는 AI 사태가 마무리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역학조사를 하면 이 같은 '미스터리'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권두석 축산정책과장은 "유형은 다르지만 바이러스는 변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에 내재돼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추후 백서가 발간되면 원인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3일 영암군 시종면의 한 농장에서 육용오리 1만6500마리 가운데 2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질병검사를 의뢰했다. 이번엔 의심 신고가 접수된 영암 시종 지역은 전남도내 최대 가금류 사육 밀집지다.

전남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영암 신북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들어와 오리 4만3000마리를 살처분할 방역당국은 이 농장 반경 500m 이내(오염지역)의 오리농장 1곳, 1만2000마리도 살처분할 방침이다.

영암 시종, 신북, 도포와 나주시 반남, 왕곡, 공산 등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전국 오리 사육량의 45%가 몰려 있는 최대 주산지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교육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7배

통계청 소비지출 동향... 술·담배·통신은 차이 적어

지난해 고소득층이 교육비로 쓴 금액이 저소득층의 7배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50만43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7만6600원의 6.58배에 달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2분위 20만1800원, 3분위 25만8700원, 4분위 37만5700원 등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비에 고비용을 지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5분위와 1분위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각각 784만6500원, 138만2600원이다. 두 집단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각각 381만8100원, 125만8100원이다.

소비지출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씀씀이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교육(6.58배)이고, 이어 의료·신발(4.93배), 오락·문화(4.9배), 기타 상품·서비스(4.42배), 교통(4.4배), 가정용품·가사서비스(4.2배), 음식·숙박(3.99배) 순이다.

반면 통신(2.31배), 보건(1.77배), 식료품·비주류음료(1.68배), 주거·수도·광열(1.53배), 주류·담배(1.36배)는 상대적으로 지출 차이가 작았다.

특히, 다른 항목은 모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 비용이 컸지만, 유일하게 주류·담배는 소득 1분위 2만1200원, 2분위 2만9400원, 3분위 3만1200원, 4분위 2만9400원, 5분위 2만8900원 등으로 소득과 지출이 비례하지 않았다.

고려대 사회학과 이명진 교수는 "부유층 자제일수록 고급 교육을 받아 부모 신분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22일(현지시각)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추기경 서임식에서 염수정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비레타를 수여받고 있다. <평화신문 제공>

염수정 추기경 서임... 교황 "한국 사랑한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염수정(71) 추기경이 지난 22일(현지시각) 바티칸에서 열린 서임 예식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가톨릭 교회 추기경에 공식 임명됐다.

염 추기경은 이날 오전 11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서임 예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순교자의 피와 추기경을 상징하는 진홍색 주케토(성직자들이 쓰는 원형의 작은 모자)와 비레타(주케토 위에 쓰는 3각 모자), 추기경 반지를 수여받았다.

이날 서임식에서는 염 추기경 외에 교황청 국무장관인 피에트로 파롤린 대주교, 신

앙리리성 장관인 게르하르트 루트비히 뮐러 대주교와 영국, 캐나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5개국에서 19명이 추기경에 공식 취임했다.

이 가운데 염 추기경을 비롯 16명은 80세 미만으로 가장 중요한 추기경 권한이자 의무인 교황 선출 투표권을 갖게 된다.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은 아시아에서 2명, 아프리카에서 2명, 북미에서 1명, 중남미에서 5명이 포함됐으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임명됐다.

이들의 서임으로 전 세계 추기경은 218명, 콘클라베에서 교황 선출권을 갖는 만 80세 미만 추기경은 122명으로 늘어난다. 그

러나 교황선출권을 갖는 추기경 중 2명이 30살이면 만 80세를 넘게 돼 정원인 120명이 될 전망이다.

염 추기경은 서임식을 마친 다음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포용을 해주면서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면서 "한국인도 교황을 사랑하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염추기경은 24일 오전 11시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고, 오후 4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26일 로마에서 출발, 27일 오후 5시25분께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나주 쪽빛 염색장 '장인의 숨결'을 찾아

관광공사, '3월에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 7곳 선정

한국관광공사는 23일 '3월에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로 나주 쪽빛 염색장 전수관(사진) 등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7곳을 선정했다.

나주 쪽빛 염색장 정관재(충무무형문화재 115호)씨의 전수관에서는 무명천에 푸른 하늘빛으로 쪽물을 들이는 전통 방식을 체험할 수 있다. 근처에는 나주읍성, 영산포 황포돛배, 100년 전통 곶감집, 흥어 거리, 불회사 등도 돌아볼 만하다.

또 함께 선정된 충북 충주 무학시장 삼화 대장간에서는 야장(治匠) 김명일(충북 무형문화재 13호) 씨가 쇠를 담금질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충남 보령 남포부루명장인 김진한(충남 무형문화재 6호) 씨의 작업실에서는 3대째 백운상석을 갈아 버루를 빚어온 장인의 작업 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

이 밖에 강원 강릉의 최봉석(전통 식품명인 23호)씨의 갈골 한과 체험전시관, 경기 과주 영집공시박물관, 경기 부천문화원 김치테마파크, 울산 외고산 응기마을 등도 함께 선정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회

고삼석·김재홍 씨 추천

해남 출신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와 김재홍 전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민주당은 23일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고 교수와 김 전 국회의원을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광주 동신교와 조선대를 나온 미디어정책 전문가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 IT미디어정책자문단 간사로 활동했다. 고 교수는 전국언론노조가 차기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또 김 전 의원은 전북 익산 출신이며,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은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과 대통령 지명 2명으로 구성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삼석



김재홍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총-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라남도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랑즈

밝은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품과 미려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꿨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흥암지점 | 653-4474